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성명		프로그램 시작일	2026. 2.16
해외 파견대학	태국 / 나레수안대학교	프로그램 종료일	2026. 2.28
파견기간	2026/02/16 ~ 2026/02/28 (13일)		
출국일	2026/02/14	귀국일	2026/03/01
1. 활동 (선택: ☒ 으로 표시)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 : 2025학년도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기타		
만족도 (선택: ☒ 으로 표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사유(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		
2. 출국 및 귀국 준비			
준비 과정	합격 발표 후 나레수안대학교 측에서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항공권 구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항공권 구입은 12월 말 정도에 같이가는 전북대 학생분들과 상의하여 같은 항공권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비자, 및 여행자 보험, 유심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견교에서 사전 준비 사항을 메일로 알려주므로 메일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물품	양산, 텀블러, 미니 선풍기, 선글라스, 모기퇴치제, 드라이기, 슬리퍼(크록스), 캡슐 세제, 유심(이심or 로밍), 수건, 옷, 모자, 선크림, 샤워기 필터, 샤워용품, 상비약, 보조배터리		
기타참고사항	태국은 2월에도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합니다. 따라서 양산이나 모자, 그리고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 용품이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소통을 위한 '라인' 앱을 미리 다운로드하고, 파견교에서 큐알이 송부된 메일로 오면 미리 채팅방을 참여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 큐알, 혹은 토스 어플 내의 gln 큐알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현금을 환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0-15만원정도)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전북대보다 4배가량 넓고, 날씨가 더워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혹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기숙사 형태로2인1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침대, 책상 개인당2개, 옷장, 내부에 화장실과 욕실 분리) 성별이 같다면 아마 같은 학교끼리 우선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숙소 내에서 바퀴벌레를 포함한 벌레는 본 적이 없으며, 제공되는 것은 얇은 이불과 베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수건, 드라이기, 샤워용품, 화장지 등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며, 수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샤워필터도 꼭 여러 개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숙사 내부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이용시에30바트씩 지불해야합니다. (세제는 개인이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캡슐세제를 챙겨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는 매우 더우며, 현장체험 같은 외부를 돌아다니는 활동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양산이나 모자, 부채 같은 물품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얇은 겉옷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기숙사 앞에 있는 식당이나 그 옆의 세븐일레븐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식사는50-60바트 정도에 해결하실 수 있으며, 물은 세븐일레븐에서10바트 정도에 구매하거나 기숙사 내부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캠퍼스 내에 셔틀버스가 무료로 촘촘한 시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이동은 쉬운 편입니다. 학교 밖에서의 움직임은 주로 버디들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과 달리 헬멧을 쓰지않고 2-3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신은 기숙사 및 학교 전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많이 덥기 때문에 선크림 및 모자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 헬멧을 이용하지 않거나 더욱 심한 경우 면허또한 취득하지 않은 채로 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감	현지 담당 선생님들께서 출국 전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도착 후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디가 한 명씩 배정되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버디들이 현지 문화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2주 동안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춤, 음악, 요리, 마사지, 무예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매우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버디와 함께 캠퍼스를 산책하며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던 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사진(시설, 행사, 참가프로그램 등)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성명		프로그램 시작일	2026.02.15
해외 파견대학	태국 / 나레수안대학교	프로그램 종료일	2026.02.28
파견기간	2026/02/15 ~ 2026/02/28 (13일)		
출국일	2026/02/14	귀국일	2026/03/01
1. 활동 (선택: ☒ 으로 표시)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 2026학년도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기타		
만족도 (선택: ☒ 으로 표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사유(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		
2. 출국 및 귀국 준비			
준비 과정	출국 전 항공권 구매, 여행자 보험, e-sim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방문 전 나레수안대학교의 전공 분야와 캠퍼스 환경을 조사하며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태국의 문화와 예절을 사전에 학습하여 현지 적응을 준비하였고, 출국 전 나레수안대학 측에서 나눠주는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준비 물품	여권 및 항공권은 필수로 준비하였으며, 개인 위생용품과 의류, 상비약 등을 챙겼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위해 휴지와 샤워기 필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지 기후가 덥고 햇빛이 강하므로 운동화와 샌들 등 여분의 신발을 준비하고, 모자나 양산, 선크림을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역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 시 휴대전화 외의 전자기기가 필수는 아니었으나, 필요 상황에 대비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준비하는 것도 추천한다		
기타참고사항	기숙사 앞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으며, 학교 인근에도 대형 마트와 시장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준비하지 못한 물품이 있더라도 현지에서 대부분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시 나레수안대학교 측에서 현지 통화(바트)를 지원해 주며, 기숙사 인근에 환전이 가능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나레수안 대학교의 캠퍼스는 전북대학교의 약 5배 규모로 매우 넓은 편이다. 교내 이동 시 현지 학생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며, 교환학생에게는 학교 측에서 자전거를 제공하여 캠퍼스 내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전거를 활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교내에는 도마뱀과 다양한 새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기숙사 내부는 전반적으로 청결한 상태였으나, 침대가 다소 딱딱하고 제공되는 이불이 얇은 편이어서 일부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방문 당시 기온은 대부분 33도 이상으로, 한국의 한여름과 비슷한 더운 날씨였다. 식사는 주로 기숙사 앞 식당을 이용하였으며, 메뉴 종류가 다양하고 한 끼에 약 40~50바트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다. 또한 편의점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음식과 간편식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저녁 시간에는 태국 버디 학생들이 근처의 현지 식당을 소개해주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대부분의 식사는 40~60바트 수준이었으며 카페 역시 한국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의료,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교내 기숙사 및 강의실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여 인터넷 사용에 큰 불편은 없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기숙사 앞으로 교내 셔틀버스인 오렌지 버스가 운행되었으며, 버디 학생들과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오렌지 버스는 교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운행 시간을 숙지하면 캠퍼스 내 이동에 어려움이 없었다. 교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주로 차량 호출 서비스인 그랩(Grab)을 이용하였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 준비를 통해 태국의 기후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지 생활은 예상보다 더 덥고 생활 리듬이 여유로운 편이었다. 특히 시간 개념이나 수업 분위기에서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또한 교내에서 도마뱀이나 다양한 동물을 자주 접하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으나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소감	2주 동안 5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한 경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사눌룩 필드트립, 태국 음식 만들기, 마사지 체험, 타이 티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태국 버디 학생들과의 교류는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았다.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고 도움을 주었던 덕분에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지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교류의 장이었다. 이를 통해 세계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4. 학교 사진(시설, 행사, 참가프로그램 등)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성명		프로그램 시작일	2026/02/15
해외 파견대학	태국 / 나레수안대학교	프로그램 종료일	2026/02/28
파견기간	2026/02/15 ~ 2026/02/28 (13일)		
출국일	2026/02/14	귀국일	2026/02/28
1. 활동 (선택: ☒ 으로 표시)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	
	기타		
만족도 (선택: ☒ 으로 표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사유(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		
2. 출국 및 귀국 준비			
준비 과정	나레수안 대학교 측에서 파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시로 요청하기 때문에, 수시로 메일함을 확인하며 요구사항에 수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국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견 전 현지 타이 버디들과 라인 등을 통해 미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물품	태국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반팔 위주로 챙겼습니다. 다만, 방콕 공항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약 6시간 정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 안의 에어컨이 매우 강해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석회수 성분이 강해 수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샤워기 필터가 필수입니다. 큰 쇼핑몰이나 마트에서는 GLN(QR 결제)이 매우 편리하므로 관련 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과 모자, 비상약 등을 준비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기숙사 바로 앞 은행은 환율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 민간 환전소에서 미리 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마트나 쇼핑몰에서는 GLN(QR 결제)이 잘 되어 있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만, 학생식당이나 로컬 시장은 현금 결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나레수안 대학교는 캠퍼스 외곽 한 바퀴가 약 6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학교 안에서 이동할 때 셔틀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타이 버디들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이동했는데 이게 가장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날씨가 워낙 덥고 현지 분위기상 자전거를 타는 학생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운동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부터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육상 트랙까지 갖춰져 있어 운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7-Eleven과 상점들이 모여 있어 음식 구매가 편리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이용했습니다. 환전의 경우, 기숙사 바로 앞에 은행이 있긴 하지만 환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시내에 있는 민간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2월 중순부터 태국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해가 뜨기 전 아침에는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지만, 오전 8시만 넘어가도 햇빛이 강해지며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라가 매우 덥습니다. 저녁에는 26도 정도로 떨어져서 일교차가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팔 위주로 챙기시되, 햇빛에 타는 게 싫다면 얇은 긴팔을 준비하세요. 두꺼운 바람막이는 짐만 되니 비추천합니다. 방 크기도 적당하고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내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화장실이 베란다 쪽에 있는 점이 한국과 달라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이 석회수라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압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낮아지기도 하고, 가끔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과 마트가 있어 생필품을 사기 좋습니다. 학교 측에서 하루 식비로 80바트를 지원해 주는데, 학생식당 메뉴가 보통 40~50바트 내외라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합니다. 학생식당 카페 아메리카노는 45바트 정도입니다. 밖으로 나가 로컬 식당을 이용할 때는 보통 50바트 이상이며, 디저트나 음료 가격도 비슷합니다. 식당에서 주는 얼음이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장이 예민한 분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학생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주로 현금을 썼고, 큰 쇼핑몰이나 마트에서는 GLN(QR 결제)을 사용했습니다. 기숙사 앞 은행은 환율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외부 민간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학교 지원금이 잘 나오지만, 매일 저녁 버디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로컬 맛집이나 카페를 즐기려면 개인 환전액을 조금 넉넉히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통신은 5G가 잡히긴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지 않아 데이터 사용 시 인내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학교에서 끼니당 80바트씩 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돈을 쓸 일은 없지만, 저녁마다 버디들과 밖으로 나가서 놀 계획이라면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소감	이번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여행과 달라서 좋았던 점은 단순히 유명한 곳을 구경하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조금 서툴러서 소통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현지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즉 태국 사람들의 습관이나 마인드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특히 무에타이나 전통 악기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현지 버디들과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여행으로만 왔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현지의 진짜 모습들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운 이번 경험은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사진(시설, 행사, 참가프로그램 등)

